

위기에 강한 KIA, ‘선두 독주 체제’ 굳힐까

KIA 정규 시즌 ‘매직 넘버’ 12

화 LG·수~목 한화·금~일 키움戰

안방 6연전... 휴식 앞 총력전 전망
지난주 5경기 42점 ‘화끈한 화력’
외인 원투펀치 활약 여부는 고민



선발진 초토화라는
초대형 악재도 KIA타
이거즈의 우승 도전을
막지 못하고 있다. 위기

를 헤쳐나가는 능력과 우승 경쟁 상대에
게 강한 면모까지 갖추면서 이번 주 정규
시즌 우승을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KIA는 미편성과 우천순연 등 재편성
경기에 돌입하기에 앞서 마지막이었던 지
난 주중 3연전에서 SSG랜더스에 2승 1패
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다.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두 경
기를 모두 승리했다.

지난주 4승 1패로 승패 마진이 +3에 이
른 KIA는 올 시즌 75승 2무 49패(승률
0.605)를 기록하며 다시 6할 승률 복구에
성공했다. 특히 2위 삼성과 승차를 다시
6.5경기로 벌리는데 성공했다.

올 시즌 18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KIA
가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 짓기 위해 필요
한 승수인 ‘매직 넘버’도 12까지 줄었다.
삼성이 패배할 경우에도 매직 넘버가 하
나씩 줄기 때문에 KIA는 이르면 다음 주



KIA타이거즈가 3일 LG트윈스, 4~5일 한화이글스, 6~8일 키움히어로즈와 안방에서 6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 달 3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매직 넘버를 모두 삭제할 가능성도 점쳐
진다.

KIA는 3일 LG트윈스를 만난 뒤 4일과
5일에는 한화이글스, 6~8일에는 키움히
어로즈를 만난다. 여섯 경기 모두 안방에
서 치러지는 일정이다.

LG는 지난주 KT위즈와 4연전에서 2
승 2패에 그치며 KIA와 9경기 차 3위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체력적인 여유를
갖고 광주로 내려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주중 롯데자이언츠와 3연

전에서 1승 2패로 루징 시리즈를 안은 뒤
지난달 31일 KT와 맞대결에서도 패배했
다. 김경문 감독 체제로 개편한 뒤 포스트
시즌 경쟁에 가세했지만 결정적인 추격
기회를 놓치며 가을야구권과 2.5경기 차
6위에 머무르고 있다.

키움은 지난 주중 삼성과 3연전에서 싹
쓸이를 당한 뒤 지난달 30일 롯데와 맞대
결에서도 무릎을 꿇으며 4연패에 빠졌
다. 9위 NC다이노스와의 4경기 차로 최
하위 탈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KIA는 LG를 상대로 양현종, 한화를
상대로 김도현과 에릭 라우어, 키움을 상

대로 황동화와 에릭 스타우트, 양현종이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LG는 엘리저 에
르난데스, 한화는 라이언 와이스와 제이
미 바리아, 키움은 하영민과 김윤하, 아리
엘 후라도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범호 감독은 확대 엔트리를 활용해
불펜 보강에 주력한 만큼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KIA는 오는 9~11일 사흘 휴식
이 예정돼있어 충분한 회복이 가능한 상
황이다.

다만 외인 원투펀치가 확실한 위력을
갖춰줘야 한다. 라우어는 한국 무대 입성

2024 KBO리그 순위		(2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26	75	49	2	0.605	-
2	삼성	127	69	56	2	0.552	6.5
3	LG	124	65	57	2	0.533	9
4	두산	129	64	63	2	0.504	12.5
5	KT	127	62	63	2	0.496	13.5
6	한화	122	57	63	2	0.475	16
7	롯데	121	56	62	3	0.475	16
8	SSG	126	59	66	1	0.472	16.5
9	NC	122	55	65	2	0.458	18
10	키움	124	53	71	0	0.427	22

후 4경기에서 1승 2패, 평균자책점 6.87
에 그치고 있다. 스타우트는 삼성을 상대
로 KBO 리그 데뷔전을 가지며 4이닝 5실
점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부상 공백에 부진까지 겹치며 마운드
고민이 깊은 상황이지만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카드는 공격적이다. KIA는
지난주 다섯 경기에서 팀 타율이 무려 4할
5리에 이르면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
다. OPS(출루율+장타율) 역시 1.070으
로 여유 있게 선두를 달렸고, 42득점을 뽑
아내며 경기당 평균 8.4득점을 생산했
다.

특히 김선빈의 주간 타율은 무려 6할,
나성범과 김도영, 박찬호, 최원준의 주간
타율은 4할을 웃돌았다. 소크라테스 브리
토까지 4할 가까운 주간 타율을 기록하면
서 상위에서 하위까지 거를 순서가 없는
지뢰밭 타선을 구축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화순군청 정나은, 코리아오픈 여자 복식 우승

김원호와 혼합 복식 공동 3위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나
은(화순군청)이 코리아오픈 2024(슈퍼
500)에서 여자 복식 짝꿍 우승을 차지하
며 쾌조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정나은은
혼합 복식에서도 공동 3위를 차지하며 이
번 대회 한국의 종합 우승 선봉에 섰다.

정나은은 김혜정(삼성생명)과 호흡을
맞춰 지난 1일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 복식 결승에서 말레이시
아의 펠리 탄-티나 무랄리탄 조에 2-0
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정나은-김혜정 조는 준결승에서 이윤희
(삼성생명)-신승찬(인천국제공항) 조
와 집안싸움이 성사됐으나 2-0 완승을 거

두며 결승에 올라, 올해 첫 국제 대회 우승
을 합작했다.

정나은은 김원호(삼성생명)와 짝을 이
룬 혼합 복식에서도 공동 3위의 성과를 이
뤘다. 정나은-김원호 조는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이번 대회 혼합 복식
준결승에서 중국의 귀신와-리첸 조에 1-
2로 석패하며 결승 진출이 무산됐다.

한편 한국은 이번 대회 종합 우승을 차
지했다. 김가은(삼성생명)이 여자 단식
우승, 서승재-강민혁(이상 삼성생명) 조
가 남자 복식 준우승, 심유진(인천국제공
항)과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
(MG새마을금고) 조, 이윤희-신승찬 조
는 각각 여자 단식과 복식, 혼합 복식에서
준결승 진출을 이뤘다.

한규빈 기자

‘영암 출신’ 유해란, LPGA FM챔피언십 우승

고진영과 연장 끝에 초대 우승

‘영암 금정’ 출신 프로골퍼 유해란(23·
사진)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
어 FM 챔피언십(총상금 380만 달러·약
50억9000만원) 우승을 차지하며 11개월
만에 투어 개인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유해란은 2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
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9개와
보기 1개를 묶어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유
해란은 고진영과 공동 선두에 올랐고, 1
차 연장전에서 고진영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으
로 57만 달러(약 7억
6300만원)를 받았다.

유해란은 지난 2012
년 12월 LPGA 켈리파
잉 시리즈를 1위로 통
과하며 지난해 LPGA 투어에 뛰어들어
10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LPGA 데뷔 첫 우승을 달성하고 투어 신
인왕을 차지했다. 올해는 LPGA 투어 대
회에 19번 나서 8번의 톱10과 5번의 톱5
를 기록했을 뿐, 트로피를 차지하지는 못
하다 11개월 만에 투어 통산 2승 달성에
성공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 패럴림픽 메달 레이스 순항

배드민턴 유수영 은메달
보치아 강선희 동메달
5일 만에 은 3개·동 2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나선 광주·전남
장애인 태극전사들이 메달 레이스를 순조
롭게 이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 유수영이 배드민턴에서 은메달, 한
전KPS 소속 강선희가 보치아에서 동메
달을 추가하면서 개막 다섯 만에 지역에
서만 은메달 3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하
는데 성공했다.

유수영은 정재군(울산중구청)과 호흡
을 맞춰 2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
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펬에서 열린
이번 대회 배드민턴 남자 복식 WH1-2 금메
달 결정전에 나섰으나 마이지안핑-취찌
모(이상 중국) 조에 0-2(10-12, 12-21)
로 고배를 마시면서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유수영-정재군 조는 앞서 조별리그에
서 최정만-김정준(이상 대구도시개발공
사) 조와 토마스 자콥스-다비드 투페(이
상 프랑스) 조, 마츠모토 타쿠미-나가시
마 오사무(이상 일본) 조를 모두 2-0으로
완파하며 3전 전승으로 A조 1위에 올랐
다.

이어 준결승에서 마츠모토 타쿠미-나
가시마 오사무 조와 리턴 매치가 성사됐
으나 다시 2-0(21-12, 21-12)으로 완승
을 거두며 결승에 올라 금메달을 넘겼으
나 2020 도쿄 패럴림픽 디펜딩 챔피언이
었던 중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유수영은 경기 직후 믹스트존 인터뷰를



한국 장애인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유수영(왼쪽)이 정재군과 함께 2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펬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WH1-2 금메달 결정전에서 마이지안핑-취찌모 조를 상대하고 있다. 뉴시스

통해 “지금 당장은 금메달을 차지하지 못
해 조금 분하지만 시상대에 올라가면 은
메달을 딴 기쁨이 느껴질 것 같다”며 “많은
응원 덕분에 남자 복식 은메달을 딸 수
있었다.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고, 4년 뒤
에는 응원을 감절로 갚겠다”고 소감을 밝
혔다.

강선희는 같은 날 오전 프랑스 파리 아
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보치
아 여자 단식 BC3 동메달 결정전에서 에
바니 칼라도(브라질)를 7-2로 꺾고 구릿
빛 굴리기에 성공했다. 강선희는 앞서 조
별리그에서 제미슨리슨(호주)을 6-1, 에
블린드 윌리베이라(브라질)를 7-0, 샬리
키드슨(영국)을 7-0으로 연파하며 3전
전승으로 C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8강에서 이치노에 아야네(일본)
에게 2엔드까지 0-2로 끌려간 뒤 3엔드와

4엔드에서 3-2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지
만 준결승에서 호완케이(홍콩)에게 1-4
로 고배를 마시며 동메달 결정전으로 향
했다.

강선희는 처음 밟은 패럴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값진 성과를 일궜다.
그는 2000년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1급을
받은 뒤 2017년 보치아에 입문했고, 2년
만에 국가대표에 선발됐으나 2020 도쿄
패럴림픽에는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
다.

한편 광주·전남 선수단은 지난달 29일
막을 올린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3개와 동
메달 2개를 수확했다. 앞서 사격의 이윤
리(완도군청)와 탁구 여자 복식의 서수연
(광주광역시청)이 은메달을 차지했고,
탁구 남자 복식의 박진철(광주광역시청)
이 동메달을 추가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